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문화와 창조

도시와 삶

문화로 욕망을 디자인하라



이무용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의 저자 다니엘 핑크는 미래 인재의 조건을 하이 컨셉트(예술적·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와 하이 터치(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라는 말로 요약한다. 그 인재가 바로 예술가를 비롯한 문화전문가다. 원시시대엔 사냥꾼, 농업시대엔 농부, 산업시대엔 블루칼라 노동자, 지식시대엔 화이트칼라 경영자가 중요한 존재였다면, 미래는 문화전문인력이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핵심 인재라는 것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전공과 연계된 문화일지리의 부족이다. 정규직과 같은 안정된 취업기회 부족, 채용정보 부족, 다양한 현장경험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우리의 현주소를 고려해볼 때,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서 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소통의 장 제공이다. 젊은이들과 전문가들이 만나는 정기적인 문화포럼을 개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의 문화적 흐름을 학습하고, 취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주체들 간의 사고와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 문화전문대학원 등 문화 관련 공공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둘째, 문화정보의 체계적 구축이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문화전문인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 프로그램이나 기획형 작스튜디오 제공, 문화전문인력 양성 기관 등 다양한 공간, 예산, 컨설팅, 교육 지원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의 문화일자리 관련 정책, 문화기업의 동향과 흐름,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문화일자리 수요와 가능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문화정보센터 기능이 필요하다. 문화재단과 문화전문대학원, 광주발전연구원 등의 전문기관들이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풀어가면 좋겠다.

셋째, 안정된 문화일자리 기회에 대한 적극적인 공약이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설립될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관광공사, 제2 컨벤션센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콘텐츠팀원, 영암의 F1 자동차대회와 광주하이테크비즈니스아드, 여수엑스포와 같은 축제관광이벤트 개최 등으로 문화일자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러한 공공문화일자리에 대한 꼼꼼한 체크와 적합한 자질을 갖추는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 창조적인 문화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 지역은 문화, 관광, 환경, 도시브랜드 분야에서 차별화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18과 인권브랜드, 근대문화의 태동지 양립동역사문화마을, 예향과 미향의 남도문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해양관광, 친환경 메카관광이벤트 등 지역특화자원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문화일지리를 창조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로 욕망을 디자인하는 창조적 문화전문인력 양성이다. 역사문화공간을 재생시키는 창조공간 디벨로퍼, 창조관광 전략가, 일상문화창조 컨설턴트, 도시문화경영자, 장소마케터, 도시브랜드 컨설턴트, 만남경영기획가, 도보문화경영자 등이 최근 새롭게 디자인되고 있는 문화전문인력 모델들이다.

특히 상상력으로 여러 영역을 통합하는 총체적 문화전문가(cultural generalist), 서로 상관없이 보이는 이질적인 것을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네트워크(networker)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도시공사, 지하상가 관리 ‘떴대로’ 해도 되나

광주도시공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위탁관리를 이유로 층금지하상가 상인들의 권리를 제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상인들이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에너지 절감 및 경기 침체에 따른 고액 감소로 인해 도시공사 측에 휴일 수를 현재의 연간 6일에서 14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5년째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지난 9월 강운대 광주시장과의 면담에서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내면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강 시장의 확답까지 받았으나 도시공사 측이 이마저 무시하고 있다. 지난달 입주 상인 85명 이 투표를 실시해 84%의 압도적인 찬성 의견이 나왔는데도 도시공사가 어찌 구니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한다. 강 시장과의 약속은 안중에 없다는 얘기다.

도시공사 측의 묵살 이유를 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다. 단 1명의 반대 의견이라도 있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시장과의 약속은 안중에 없다는 얘기가. 도시공사 측의 묵살 이유를 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다. 단 1명의 반대 의견이라도 있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시장과의 약속은 안중에 없다는 얘기가.

광주시립미술관장 선임 ‘밀실 인사’ 안 돼야

최근 광주지역 미술계에서는 오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시립미술관장 인선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립미술관은 예향(藝鄕)을 자처하는 광주의 핵심 미술 인프라일 뿐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 확대 등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서 미술관 수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우짜다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모를 통해 시 인선위원회 후보를 압축하지만 결국은 시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밀실 인사’였다는 것이다. 차기 시립미술관장 인선을 놓고도 벌써 이런저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 미술계 안팎에서는 “이미 시장 관계자가 특정 후보를 만나 사전 면담을 했다”는 등 ‘내정설’까지 떠돌고 있다고 한다.

이번 시립미술관장 인선에서 또다시 구태(舊態)가 되풀이된다면 미술계는 물론 지역 문화·예술계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특히 예전처럼 선임을 둘러싼 갖은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강운대 시장의 몫이다. 이는 강 시장의 향후 시장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차기 미술관장 선임이 ‘밀실 인사’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임선숙 칼럼. F1 코리아그랑프리 첫 대회가 F1 머신만큼 아찔한 속도로 지나갔다. 이번 대회는 우리 안에 숨어있던 질주본능을 깨우고, 한편으론 우리 지역도 세계를 상대로 내놓을 수 있는 뭔가를 가지게 되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앞으로 개최될 F1 대회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 같다.

F1특별취재팀 다양한 기사 계속 제공을. 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4년 전인 2006년 10월, F1 대회의 유치를 선언했을 때의 내외부의 냉소적인 반응들, 2009년 10월 국회에서 F1지원법이 통과된 뒤에도 많은 여론은 여전히 대회개최 가능성을 의심하고 격정만 하면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은 대회개최를 일주일 남짓된 2010년 10월 11일, 국제자동차연맹의 경주장의 서킷(경주용 트랙) 감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팔짱을 끼고 F1 대회에 대한 기사를 본격적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조영대 칼럼. 가을바람이 지나가더니 푸르렀던 나뭇잎들이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 온 산야를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푸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안겨주던 가을에는 땅으로 돌아갈 날을 곧 앞두고도 이토록 화려한 색들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나뭇잎들의 사랑에 고마움과 함께 절로 반성의 마음도 갖게 됩니다. 나는 지난 한 해 이웃들에게 얼마나 활력과 기쁨을 주며 살아왔는가, 나는 나를 비우며 다른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반성해 봅니다.

가을, 돌아감의 계절. 수해와 갑작스런 냉해로 큰 수침에 잠겨있는 농민들의 심정을 애통해 하듯 바람에 하늘거립니다. 빈 들판을 바라보며 또 반성해 봅니다. 내 삶의 수확은 어느 정도일까요.. 씨앗들이 제 주인에게 대인을 제시하는 발 빠른 대응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2011년에 개최될 F1대회는 이번 대회의 부실을 딛고 ‘완전한 성공’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대회개최를 코앞에 두고 그때야 다들 허둥지둥 나서서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無等鼓. 남파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공룡이다. 공룡관련 책을 끼고 살고 심지어 그 많은 공룡의 이름과 특징을 줄줄 외우고 다니는 어린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공룡(Dinosaurs)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의 ‘거대한 도마뱀’에서 왔다. 600만 년 전의 공룡 가운데 가장 친숙한 이름은 아무래도 ‘티라노사우루스’일 것이다. 지구상에 살았던 육식공룡 가운데 가장 무섭고 사나운 공룡으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인정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신청·매일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